

《西湖夢尋》의 註釋과 翻譯(1)

金 淑 香^{*}

<목 차>

1. 서 론
2. 《西湖夢尋》 소개와 번역 의의
 - 2.1 《西湖夢尋》 소개
 - 2.2 《西湖夢尋》의 번역 의의
3. 《西湖夢尋》의 주석과 번역
4. 결 론

1. 서 론

《西湖夢尋》은 明末 문인 張岱(1597-1679)가 지은 소품집이다. 中國 浙江省 杭州에 위치한 호수인 西湖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건축, 풍습, 전설 등을 자세히 기록해놓았다. 《서호몽심》은 장대의 대표적인 문집 가운데 하나로, 만명 소품문의 발전과 명말 강남의 아름답고 활기찬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서호몽심》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장대의 작품 세계를 비롯 만명 소품문의 발전과 강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¹⁾

* 고려대 강사

1) 본고는 1883년에 간행된 武林掌故叢編本을 底本으로 한 《西湖夢尋》(俞瓊穎 評註, 上海三聯書店, 2014)을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2. 《西湖夢尋》 소개와 번역 의의

2.1 《西湖夢尋》 소개

장대는 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타고난 글재주에 집안에서 보유한 수많은 장서를 읽어 능력이 있었지만 관리를 지낸 적은 없다. 또한 명나라 말기에 태어나 청나라 초기에 죽었으니, 나라가 바뀌는 혼란한 시기를 살았다. 어려서는 몸이 허약하여 외부 활동보다 주로 독서를 하며 지냈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취미를 갖고 사대부 문인부터 승려·기생·배우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심미관과 창작세계를 구축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장대는 청나라에 불복하여 산으로 은거한 뒤 저술에 힘쓰다 생을 마쳤다.

《서호몽심》은 장대의 나이 75세인 康熙 10년(1671년)에 완성되었다. 그 후 46년 뒤인 康熙 56년(1717년)에 鳳嬉堂本이 발행되었고 光緒 9년(1883년)에 武林掌故叢編本이 나왔다. 항주에서 40여 년 간 살았던 장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호와 그 주변의 산수·경물·불교사원·사당 등 옛 모습을 1권 西湖總記와 西湖北路, 2권 西湖西路, 3권 西湖中路, 4권 西湖南路, 5권 西湖外景에 담았다. 아울러 매 작품마다 자신의 작품을 포함하여 서술 대상과 관련된 다른 작가의 詩, 詞, 散文 등을 함께 수록했다.

《서호몽심》의 특징 중 하나는 서술 대상의 역사적인 연원이나 관련된 전설, 그리고 대상에 대한 묘사 등 일부 내용을 다른 작가의 글을 그대로 옮겨 수록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田汝成(503-1557)의 《西湖遊覽志餘》가 가장 많다. 이는 개별적인 작품으로 보면 단순히 베껴온 글이지만 문집 전체로 보면 장대의 의도와 시각이 잘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서호몽심》의 또 다른 특징은 장대의 글 다음에 서술 대상과 관련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수록했다는 점이다. 이런 편집형태는 북경 주변의 풍토와 경물을 담은 劉侗(1594-1673)의 《帝京景物略》의 영향을 받았다.²⁾ 이러한 특징을 통해 서술 대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길 원했던 작가이자 편집자 장대의 의도가 《서호몽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2 《西湖夢尋》의 번역 의의

중국의 고전 산문은 실용적인 쓰임에서 발생되었고 발전되었다.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각종 행사에 필요한 공문서와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글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에 논리가 명확하거나 사용된 언어가 정제되어 있다면 문학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명대에 이르러 개성이 강조되는 사상이 학계에 유행하면서 산문에는 소품이라는 실용성이 배제된, 문학성이 농후한 형태의 창작이 유행했다. 장대와 그의 소품집 《陶庵夢憶》과 《서호몽심》은 바로 그러한 소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와 문집이다.

《서호몽심》은 또 《도암몽역》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장대의 소품집인데, 《도암몽역》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암몽역》이 장대의 개인적인 소회를 가득 담은 자신을 위한 글이었다면, 《서호몽심》은 장대 자신 뿐 아니라 서호를 여행하는, 혹은 알고 싶어하는 타인을 위한 글이다. 《서호몽심》은 지금으로 보자면 여행가이드 책과 같다. 서호와 그 주변 명소의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고, 그것이 가진 역사적 의미·사건·인물 등을 되짚어 주며 나아가 장대의 시각이 반영된 절묘한 감상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있다. 아울러 독자의 감상을 돕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수록했다. 이와 같이 《서호몽심》은 독자를 위해 만든 독자가 중심인, 실용성을 바탕으

2) 《四庫全書總目提要》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각 편의 처음에는 序文이 있고 그 아래에 古今의 詩文을 다양하게 배열해놓았다... 그 체계는 모두 劉侗의 《帝京景物略》을 본따고 시문 역시 公安派와 竟陵派를 이었다.(每景首爲小序, 而雜采古今詩文列於其下...其體例全仿劉侗《帝京景物略》, 其詩文亦全沿公安、竟陵之派.)”

로 한 소품집이다. 따라서 전통산문이 가진 기능성을 소품 글쓰기로 표현한 《서호몽심》은 통합적 형태로 발전한 만명 소품문의 한 특징을 보여준다.

장대는 《서호몽심》의 서문에서 저작의 동기를 직접 밝혔다. 창작의 동기는 자신의 꿈에서는 완전하게 보존된 서호가 전란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후손들이 한낱 잠꼬대처럼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도록 문자로 남겨 서호의 옛 모습 알려주고 싶었기에 《서호몽심》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장대는 《서호몽심》의 상당 부분을 서술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리 환경 특징과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해 놓았다. 이는 《서호몽심》이 명나라 말기 항주와 서호를 중심으로 한 강남 도시 문화와 자연환경, 나아가 서민의 생활과 풍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 《西湖夢尋》의 주석과 번역

◎ 서문 自序

余生不辰，闊別西湖二十八載，然西湖無日不入吾夢中，而夢中之西湖，未嘗一日別余也。前甲午，丁酉，兩至西湖，如湧金門商氏之樓外樓，祁氏之偶居，錢氏，余氏之別墅，及余家之寄園，一帶湖莊，僅存瓦礫。則是余夢中所有者，反爲西湖所無。及至斷橋一望，凡昔日之弱柳夭桃，歌樓舞榭，如洪水淹沒，百不存一矣。余乃急急走避，謂余爲西湖而來，今所見若此，反不若保我夢中之西湖，尙得完全無恙也。因想余夢與李供奉異。供奉之夢天姥也，如神女名姝，夢所未見，其夢也幻。余之夢西湖也，如家園眷屬，夢所故有，其夢也眞。今余僑居他氏已二十三載，夢中猶在故居。舊役小溪，今已白頭，夢中仍是總角。夙習未除，故態難脫。而今而後，余但向蝶庵岑寂，蓮榻於徐，惟吾舊夢是保，一派西湖景色，猶端然未動也。兒曹詰問，偶爲言之，總是夢中說夢，非麗即癡也。因作《夢尋》七十二則，留之後世，以作西湖之影。余猶山中人，歸自海上，盛稱海錯之美，鄉人競來共舐其眼。嗟嗟！金齋瑤

柱, 過舌卽空, 則舐眼亦何救其饑哉! 歲辛亥七月既望, 古劍蝶庵老人張岱題.

내 인생은 때를 잘못 만나 西湖와 이별하게 된 지 28년이 지났다. 그러나 서호는 단 하루도 내 꿈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없었으니, 꿈속에서의 서호는 단 하루도 나와 이별한 적이 없는 셈이다. 전에 甲午年과 丁酉年 두 차례 서호에 갔다. 湧金門, 商氏의 樓外樓, 祁氏의 집, 錢氏와 余氏의 별장, 우리 집안의 寄園에 갔는데, 일대의 호수와 마을이 깨진 기와와 벽돌만 남아 있었다.³⁾ 내 꿈속에 있던 것들이 도리어 서호에 없었다. 斷橋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⁴⁾ 옛날 어린 버들개지와 예쁜 복숭아꽃,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었던 누대는 마치 홍수가 집어삼킨 듯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는 다급하게 자리를 떠나며 생각하기를, ‘내가 서호에 왔다고 하나 지금 본 것이 이와 같으니 내 꿈속의 보존된, 여전히 아무 탈 없이 완전한 서호만 못하구나’하였다. 이로 인해 내 꿈과 李供奉⁵⁾의 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공봉 꿈의 天姥山은 아름다운 女神처럼 보지 못한 것을 꿈 것이니, 그 꿈 역시 환상이다. 내 꿈속의 서호는 집이나 식구처럼 본래 있던 것을 꿈 것이니, 그 꿈 역시 진짜다.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세 들어 산지도 이미 23년째나 꿈속에선 여전히 옛 집에서 살고 있다. 옛날에 부리던 어린 노복도 지금은 이미 백발노인이 되었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총각머리를 한 꼬마다. 이런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 상황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이고 나중이고 나는 오로지 蝶庵⁶⁾으로 향하여 조용히 침상에 누워 잠이 들면 오직 내 옛 꿈은 보존되고 서호의 전 풍경도 반듯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꼬치꼬치 물으면 어쩌다 대답을 해주는 게 늘 꿈속에서 꿈 이야기하는 것이니, 가위에 눌려 지껄인 헛소리 아니면 잠꼬대일 뿐이다. 이 때문에 《서호몽심》 72편을 지어 후세에 남겨, 서호

3) 湧金門: 과거 항주 서쪽 문. 商氏: 吏部尙書 商周祚. 祁氏: 右僉都禦史 祁彪佳. 錢氏: 東閣大學士 錢象坤. 余氏: 翰林院修撰 余煌. 寄園: 장대의 할아버지가 지은 별장.

4) 斷橋: 西湖에 위치한 다리로, 서호의 아름다운 경치 열 곳 중 하나인 斷橋殘雪이 바로 이곳이다.

5) 李供奉은 李白(701-762)으로, 꿈에서 천모산을 유람한 詩 《夢遊天姥吟留別》을 지었다.

6) 蝶庵: 장대의 서재 이름이자 號이다.

의 배경으로 삼는다. 나는 이런 것 같다. 산속에 살던 사람이 바다를 보고 돌아와 진귀한 해산물을 보고 칭찬하자 마을 사람들이 앞 다투어 몰려와 내 눈을 훑는 것이다. 오호라! 菰菜와 조갯살 같은 산해진미도 혀를 지나면 금세 비어 버리는데 눈으로 훑는다고 또 어찌 그 욕구를 만족시키겠는가! 辛亥 7월 16일, 古劍의 蝶庵 노인 장대가 지었다.⁷⁾

◎ 西湖總記

1. 明聖二湖⁸⁾ 명성2호

自馬臻開鑿湖，而由漢及唐，得名最早。後至北宋，西湖起而奪之，人皆奔走西湖，而鑿湖之淡遠，自不及西湖之冶豔矣。至於湘湖則僻處蕭然，舟車罕至，故韻士高人無有齒及之者。余弟毅孺常比西湖爲美人，湘湖爲隱士，鑿湖爲神仙。余不謂然。余以湘湖爲處子，眠姪羞澀，猶及見其未嫁之時，而鑿湖爲名門閨淑，可欽而不可狎，若西湖則爲曲中名妓，聲色俱麗，然倚門獻笑，人人得而媒褻之矣。人人得而媒褻，故人人得而豔羨，人人得而輕慢。在春夏則熱鬧之至，秋冬則冷落矣，在花朝則喧哄之至，月夕則星散矣，在晴明則萍聚之至，雨雪則寂寥矣。故余嘗謂：“善讀書，無過董遇三餘，而善遊湖者，亦無過董遇三餘。董遇曰：‘冬者，歲之餘也，夜者，日之餘也，雨者，月之餘也。’雪巘古梅，何遜煙堤高柳，夜月空明，何遜朝花綽約，雨色空濛，何遜晴光灩澦。深情領略，是在解人。”即湖上四賢，余亦謂：“樂天之曠達，固不若和靖之靜深，鄴侯之荒誕，自不若東坡之靈敏也。”其餘如賈似道之豪奢，孫東瀛之華瞻，雖在西湖數十年，用錢數十萬，其於西湖之性情，西湖之風味，實有未曾夢見者在也。世間措大，何得易言遊湖。

鑿湖는 馬臻이 만든 이후로 漢代부터 唐代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유명했다.⁹⁾ 이후 北宋때 西湖가 그 명성을 빼앗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서호로

7) 康熙 10년, 1671년으로 장대 나이 74세, 사망 8년 전이다. 古劍은 四川의 옛 명칭인데 장대의 본적이 사천 綿竹이다.

8) 明聖二湖: 明聖은 서호의 옛 이름이고, 二湖는 西湖의 里湖와 外湖를 말한다.

9) 鑿湖: 지금의 浙江省 紹興 남쪽에 위치한 鏡湖로, 馬臻이 뚫었다고 알려져 있다. 馬臻

달려갔다. 감호의 담백하고 원대함은 서호의 요염함에 미치지 못했던 거다. 湘湖는 외지고 황량하여 다니는 배나 수레가 드물었기에, 운치를 아는 선비나 높으신 분들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¹⁰⁾ 내 아우 의유(毅儒)는 늘 서호를 미녀에, 상호를 隱士에, 감호를 神仙에 비유하곤 했다.¹¹⁾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상호는 처녀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마치 혼인하지 않았을 때를 보는 것 같다. 감호는 명문가의 규수처럼, 바라만 볼 뿐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듯하다. 서호는 기방의 名妓처럼 가무와 여색이 모두 아름답지만 문가에 기대어 미소를 보이면 누구든지 데리고 놀 수 있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데리고 놀 수 있기에 모두가 몹시 호모하고, 모두가 몹시 호모하기에 모두가 가벼이 여긴다. 봄여름에는 자주 찾고 가을 겨울이 되면 썰렁해진다. 꽃 피는 아침에는 떠들썩하게 몰려들고 달 밝은 저녁이면 별처럼 흩어진다. 날이 맑게 개이면 부평초처럼 때로 모여서 찾고 비 오고 눈 내리면 조용해진다. 이런 까닭에 내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책을 잘 읽는 것은 董遇三餘를 넘어서 할 수 없고, 호수유람을 잘하는 것 또한 동우삼여를 넘어서 할 수 없다. 董遇가 말하길, ‘겨울은 한 해의 여유이고, 밤은 하루의 여유이며, 비 내리는 날은 시기의 여유다’라 했다.¹²⁾ 눈 쌓인 산봉우리에 오래된 매화가 어찌 안개 낀 제방의 높은 버드나무보다 못할까? 한밤중 뜬 달의 밝고 깨끗함이 어찌 아침에 핀 꽃의 아름다움보다 못할까? 비 내린 풍경의 아련함이 어찌 맑은 날의 출렁거리는 물결보다 못할까? 심오한 정취 감상은 이해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즉 湖上四賢의 경우 내가 이야기해보자면, “樂天의 광달함은 실로 和靖¹³⁾

(88-141)은 東漢의 관리이자 水利 전문가다.

- 10) 湘湖: 상호는 杭州 동남쪽 蕭山일대의 호수로, 서호와와는 자매호수라 불린다. 상호는 옛날 勾踐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뚝나와 싸웠던 곳이다.
- 11) 毅儒: 장대의 친척 동생 張弘으로, 毅儒는 그의 자이다.
- 12) 董遇: 後漢 말기 獻帝 때의 學者인데 학문을 좋아하여 늘 독서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학문으로 유명해진 그에게 후자가 배움을 청해오자 대답해준 말의 핵심이 바로 三餘다. “배움을 청하는 자가 말하길, ‘책을 읽을 겨를이 없습니다’라 했다. 동우가 말하길, ‘세 가지 여유만 있으면 마땅하다’라 하자 후자가 ‘세 가지 여유’의 의미를 물었다. 동우가 답하길, ‘겨울은 한 해의 여유이고, 밤은 하루의 여유이며, 비 내리는 날은 시기의 여유다’라 했다. (從學者云: “苦渴無日.” 遇言: “當以三餘.” 或問三餘之意. 遇言: “冬者歲之餘, 夜者日之餘, 陰雨者時之餘也.”)

의 고요함만 못하고 鄴侯¹⁴⁾의 허황됨은 東坡의 영민함만 못하다”라 했다. 그밖에는 또 말하자면 賈似道¹⁵⁾의 사치스러움과 孫東瀛¹⁶⁾의 화려함인데, 이들은 비록 서호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돈을 수십 萬이나 썼으나 서호의 성정이나 풍미에 대해서는 진실로 꿈에서 본 나만큼도 알지도 못한다. 세간의 가난뱅이 서생이 어찌 서호 유람을 가벼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 西湖北路

2. 玉蓮亭 옥련정

白樂天守杭州，政平訟簡。貧民有犯法者，於西湖種樹幾株，富民有贖罪者，令於西湖開葑田數畝。曆任多年，湖葑盡拓，樹木成蔭。樂天每於此地，載妓看山，尋花問柳。居民設像祀之。亭臨湖岸，多種青蓮，以象公之潔白。右折而北，爲纜舟亭，樓船鱗集，高柳長堤。遊人至此買舫入湖者，喧闐如市。東去爲玉鳧園，湖水一角，僻處城阿，舟楫罕到。寓西湖者，欲避囂雜，莫於此地爲宜。園中有樓，倚窗南望，沙際水明，常見浴鳧數百出沒波心，此景幽絕。

白居易가 杭州를 다스림에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소송을 간략하게 했다.¹⁷⁾ 가난한 백성들이 법을 어기면 西湖에 나무 몇 그루를 심게 했고, 부유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서호에 수 畝의 葑田¹⁸⁾을 개간하라 명했다. 역임한지 여러 해가 지나자 호수의 봉전이 전부 개간되었고 나무도 그들이 생길 정도로 무성해졌다. 백거이는 매번 이곳에 와 기녀를 데리고 산을 보며 경치를 감상했다. 백

13) 和靖(967-1028): 北宋의 詩人 林逋. 和靖은 宋 仁宗이 하사한 諡號다.

14) 鄴侯: 唐나라 李泌(722-789). 德宗 때 鄴縣侯로 봉해졌다. 道術을 좋아했으며 杭州刺史를 지냈다.

15) 賈似道(1213-1275): 南宋 말의 대신. 浙江省 臺州 사람이며 마흔 이후부터 항주의 서호 부근 孤山에서 생활했다.

16) 孫東瀛: 明 萬曆년간의 司禮太監을 지낸 관리 孫隆이며 東瀛은 그의 號다. 많은 돈을 들여 서호의 명승지를 수리했다고 알려져 있다.

17) 백거이는 822년에 杭州刺史로 부임했다.

18) 葑田은 원래 호수였던 곳에 수초같은 식물이 오랫동안 부패하면서 진흙으로 변해 만들어진 밭이다. 《宋史》에 따르면 서호 주변 30리에 이던 봉전이 있었다고 한다. “臨安西湖周圍三十里，源出於武林泉…至宋以來，稍廢不治，水涸草生漸成葑田.” 《宋史，河渠志七》

성들은 동상을 만들어 그를 기렸다. 옥련정은 호숫가에 위치하여 주위에 온갖 종류의 靑蓮이 피어있는데, 이는 마치 백거이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정자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가면 纜舟亭이 있다. 이 곳은 樓船¹⁹⁾이 뻑뻑하고 큰 버드나무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 이르러 배를 사서 호수로 들어가니 소란스럽기가 시장 같았다. 동쪽으로 가면 玉鳬園이 있는데 호수의 한 구석으로, 외진 성곽이라 배가 드물었다. 서호에 사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하고자 함에 여기만큼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 정원에는 누각이 있는데 창에 기대어 남쪽을 바라보면 모래 가장자리에 물이 맑았다. 호수 한가운데서 목욕하는 물오리 수백 마리가 출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광경이 그윽하고 빼어나다.

3. 昭慶寺 소경사

昭慶寺, 自獅子峰, 屯霞石發脈, 堪輿家謂之火龍. 石晉元年始創, 毀於錢氏乾德五年. 宋太平興國元年重建, 立戒壇. 天禧初, 改名昭慶. 是歲又火. 迨明洪武至成化, 凡修而火者再. 四年奉敕再建, 廉訪楊繼宗監修. 有湖州富民應募, 挈萬金來. 殿宇室廬, 頗極壯麗. 嘉靖三十四年以倭亂, 恐賊據爲巢, 遽火之. 事平再造, 遂用堪輿家說, 辟除民舍, 使寺門見水, 以厭火災. 隆慶三年復毀. 萬曆十七年, 司禮監太監孫隆以織造助建, 懸幢列鼎, 絕盛一時. 而兩廡櫛比, 皆市廛精肆, 奇貨可居. 春時有香市, 與南海, 天竺, 山東香客及鄉村婦女兒童, 往來交易, 人聲嘈雜, 舌敝耳聾, 抵夏方止. 崇禎十三年又火, 煙焰障天, 湖水爲赤. 及至清初, 踵事增華, 戒壇整肅, 較之前代, 尤更莊嚴. 一說建寺時, 爲錢武肅王八大壽, 寺僧圓淨訂緇流古樸, 天香, 勝蓮, 勝林, 慈受, 慈雲等, 結蓮社, 誦經放生, 爲王祝壽. 每月朔, 登壇設戒, 居民行香禮佛, 以昭王之功德, 因名昭慶. 今以古德諸號, 卽爲房名.

昭慶寺는 獅子峰과 屯霞石에서 맥이 시작되며 풍수가들에게 火龍이라 불린다.²⁰⁾ 石晉²¹⁾ 元년에 지어졌다가 錢氏 乾德²²⁾ 5년에 망가졌다. 宋 太平興國

19) 樓船: 망루가 있는 큰 배.

元年에 재건되면서 戒壇²³⁾을 세웠다. 天禧²⁴⁾ 초년에 昭慶으로 개명했다. 이해에 또 불이 났다. 明 洪武에서 成化에 이르기까지 수리했지만 다시 불이 났다. 4년에 재건하라는 칙명을 받들어 廉訪 楊繼宗의 감독 하에 수리했다.²⁵⁾ 湖洲의 한 부자가 모금에 응하여 萬金을 가져왔다. 전당과 내실이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嘉靖 34년에 왜구가 어지럽히자 적군의 근거지가 될까 두려워 다급히 불태웠다. 일이 평정된 뒤 다시 지어졌는데 풍수가들의 말을 들어 민가를 다 몰아내고 절 입구에서 물이 보이게 하여 화기를 늘렸다. 隆慶 3년에 다시 훼손되었다. 萬曆 17년에 司禮監太監 孫隆²⁶⁾이 織造를 맡아 재건을 도왔는데 장식과 법기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성대했다. 절의 회랑 양쪽으로 점포가 즐비했는데, 모두 진귀한 물건을 쌓아두고 팔았다. 봄에는 香市²⁷⁾가 열렸는데 南海²⁸⁾와 天竺²⁹⁾, 그리고 山東³⁰⁾ 지역에서 온 향배객들과 마을의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와 교역을 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혀가 닳고 귀가 멍멍해지다 여름이 돼서야 비로소 그친다. 崇禎 13년 다시 불이 나 화염이 하늘을 가리고 호수도 붉게 물들었다. 淸나라 초기에 이르러 더욱 화려해졌는데 계단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더욱 장엄해졌다. 일설에 의하면 절을 지을 때 錢武肅王³¹⁾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승려 圓淨이 승려 古樸, 天香, 勝蓮, 勝林, 慈受, 慈雲 같은 이들과 蓮社³²⁾를 결성해 불경을 외고 방생하

20) 火龍: 풍수학에서 꽃과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을 말한다.

21) 石晉: 五代十國의 後晉. 건국자가 石敬瑭이기에 石晉이라고도 한다.

22) 錢氏 乾德: 錢氏 五代十國의 吳越國으로, 錢鏐가 세웠다. 乾德은 宋 太祖 趙匡胤의 年號다.

23) 戒壇: 불가용어로, 戒를 주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壇이다.

24) 天禧: 宋 眞宗의 年號다.

25) 廉訪: 감찰하는 관직으로, 宋代 廉訪使와 元代 肅政廉訪使, 그리고 이후 按察使의 통칭이다. 楊繼宗(1426-1488)은 山西省 陽城 사람으로, 明代의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다.

26) 孫隆: 萬曆 초년에 司禮監太監을 맡았고 소주와 항주의 織造도 맡았다. 훗날 四府의 稅監을 겸임할 정도로 신임을 얻은 관리다.

27) 香市: 향배객이 많아지면서 조성된 시장이다.

28) 南海: 普陀山이다.

29) 天竺: 杭州 天竺山에 위치한 세 곳의 사찰을 말한다. 즉 上天竺法喜寺, 中天竺法淨寺, 下天竺法鏡寺이다.

30) 山東: 浙江省 동쪽 일대를 말한다.

31) 錢武肅王(852-932): 吳越國의 개국자 錢鏐로, 諡號가 武肅이다.

32) 蓮社: 晉의 高僧 慧遠이 廬山에 세운 불교 모임으로,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불교 모임으로

며 왕을 위해 축수했다고 한다. 매일 초하루 壇에 올라 戒를 설치하고 현지 백성들과 향을 태우고 예불하며 昭王의 공덕을 기리니 이로 인해 소경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지금은 여러 고승들의 이름을 따서 방 이름에 붙였다.

4. 哇哇宕 와와탕

哇哇石在棋盤山上. 昭慶寺後, 有石池深不可測, 峭壁橫空, 方圓可三四畝, 空穀相傳, 聲喚聲應, 如小兒啼焉. 上有棋盤石, 聳立山頂. 其下烈士祠, 爲朱蹕, 金勝, 祝威諸人, 皆宋時死金人難者, 以其生前有護衛百姓功, 故至今祀之.

哇哇石은 棋盤山에 있다. 昭慶寺 뒤에 石池가 있는데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 가파른 절벽이 허공을 가로 질러있고 주위의 길이가 가히 3,4畝나 된다. 빈 골짜기에는 소리가 울려 누군가 부르면 그 소리가 되돌아와 마치 어린 아이가 우는 듯했다. 위로는 기반석이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다. 그 아래로는 烈士祠가 있는데 朱蹕, 金勝, 祝威와 같은 이들을 기리는 사당이다.³³⁾ 이들은 모두 宋나라 때 金나라에게 저항한 자들로, 생전에 백성들을 보호한 공이 있기에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

5. 大佛頭 대불두

大石佛寺, 考舊史, 秦始皇東遊入海, 纜舟於此石上. 後因賈平章住里湖葛嶺, 宋大內在鳳凰山, 相去二十餘里, 平章聞朝鍾響, 卽下湖船, 不用篙楫, 用大錦纜絞動盤車, 則舟去如駛, 大佛頭, 其系纜石椿也. 平章敗, 後人鑄爲半身佛像, 飾以黃金, 構殿覆之, 名大石佛院. 至元末毀. 明永樂間, 僧志琳重建, 敕賜大佛禪寺. 賈秋壑爲誤國奸人, 其於山水書畫古董, 凡經其鑒賞, 無不精妙. 所制錦纜, 亦自可人. 一日臨安失火, 賈方在半閑堂門蟋蟀, 報者絡繹, 賈殊不顧, 但曰: “至太廟則報.” 俄而, 報者曰: “火直至太廟矣!” 賈從小肩輿, 四力士以椎劍護, 昇輿人里許卽易, 倏

사용되었다.

33) 朱蹕, 金勝, 祝威: 이들은 모두 金나라 군대에 맞서 싸운 南宋의 장수다.

忽至火所，下令肅然，不過曰：“焚太廟者，斬殿帥。”於是帥率勇士數十人，飛身上屋，一時撲滅。賈雖奸雄，威令必行，亦有快人處。

大石佛寺는 역사를 살펴보면, 진시황제가 동쪽으로 순행할 때 배를 정박시킨 돌이었다.³⁴⁾ 훗날 賈平章이 서호의 葛嶺³⁵⁾에 살았는데, 宋大內³⁶⁾가 鳳凰山에 있었으니 서로간의 거리가 20리가 넘었다. 가평장은 아침 종소리를 듣고 바로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노를 사용하지 않고 큰 비단줄을 꼬아 축을 만들어 지었으니 마치 조종하는 것처럼 배가 빨리 갔다. 대불두는 바로 그 닻줄을 묶어 놓은 표석이다. 가평장이 패한 뒤에 사람들은 반신불상을 만들어 황금으로 장식하고 전당을 수리하여 大石佛院이라고 불렀다. 원나라 말기에 망가졌다. 明 永樂년간에 승려 志琳이 재건했고 칙명을 받들어 大佛禪寺라 했다. 가평장은 나라를 망친 간신이었지만, 山水書畫와 골동품에 있어서 그의 감상을 거치면 정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만든 비단줄 또한 뛰어났다. 하루는 臨安에 불이 났는데 가사도가 방문을 반쯤 닫고 귀뚜라미 싸움을 하고 있었다. 불이 났다고 알리러 온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가사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말하길, “太廟³⁷⁾까지 불이 불거든 와서 알려 주거라”라 했다. 잠시 뒤, 누군가 와서 보고하기를, “불이 태묘까지 번졌습니다!”라 하자 가사도는 시종을 데리고 가마에 올라 무장한 네 명의 무사들의 호위를 받았다. 가마를 탄 사람들은 조금씩 가다 자리를 바꿔서 순식간에 불이 번진 곳에 도착했다. 가사도가 근엄하게 명령을 내리길, “태묘가 불타거든 殿帥³⁸⁾를 배라”했다. 이에 병사들을 이끄는 용사 수십 명이 몸을 날려 지붕에 올라 일시에 불 속에 들어갔다. 가사도는 비록 간웅이지만 위엄있게 명령을 내렸고 반드시 행했으니 또한

34) 기원전 210년 秦始皇은 咸陽에서 순행을 떠났다. 會稽에서 禹王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 錢塘을 거쳤는데, 전당강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자 寶石山 아래에 배를 정박시키고 돌에 닻줄을 묶었다고 전해진다.

35) 葛嶺: 寶石山 서쪽 산으로, 東晉 시기 葛洪이 수련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36) 宋大內: 大內는 황궁이다. 송대내는 곧 南宋의 行宮을 말한다. 남송은 항주 鳳凰山 아래에 행궁을 지었다.

37) 太廟: 왕실의 종묘다.

38) 殿帥: 호위하는 시종군의 지휘관이다.

시원시원한 점이 있었다.

6. 保俶塔 보속탑

寶石山高六十三丈, 周一十三里. 錢武肅王封壽星寶石山, 羅隱爲之記. 其絕頂爲寶峰, 有保俶塔, 一名寶所塔, 蓋保俶塔也. 宋太平興國元年, 吳越王濬, 聞唐亡而懼, 乃與妻孫氏, 子惟濬, 孫承祐入朝, 恐其被留, 許造塔以保之. 稱名, 尊天子也. 至都, 賜禮賢宅以居, 賞賚甚厚. 留兩月遣還, 賜一黃袱, 封識甚固, 戒曰: “途中宜密觀.” 及啓之, 則皆群臣乞留俶章疏也, 俶甚感懼. 既歸, 造塔以報佛恩. 保俶之名, 遂誤爲保叔. 不知者遂有“保叔緣何不保夫”之句. 俶爲人敬慎, 放歸後, 每視事, 徙坐東偏, 謂左右曰: “西北者, 神京在焉, 天威不遠顏咫尺, 俶敢寧居乎!” 每修省入貢, 焚香而後遣之. 未幾, 以地歸宋, 封俶爲淮海國王. 其塔, 元至正末毀, 僧慧炬重建. 明成化間又毀, 正德九年僧文鏞再建. 嘉靖元年又毀, 二十二年僧永固再建. 隆慶三年大風折其頂, 塔亦漸圯, 萬曆二十二年重修. 其地有壽星石, 屯霞石. 去寺百步, 有看松台, 俯臨巨壑, 凌駕松抄, 看者驚悸. 塔下石壁孤峭, 緣壁有精廬四五間, 爲天然圖畫圖.

寶石山の 높이는 63丈이고, 둘레는 13里다. 錢武肅王이 壽星寶石山으로 봉하고 羅隱³⁹⁾이 그것을 기록했다. 산 정상에는 寶峰이 있고 保俶塔이 있는데 일명 寶所塔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바로 보속탑이다. 宋 太平興國 元년에 吳越王俶은 唐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아내 孫氏와 아들 錢惟浚, 그리고 손자 錢承祐와 함께 조정에 들어간 뒤 억류될까 걱정되어 불탑을 세워 보호받으려 했다. 탑에 이름을 붙이고 천자를 받들었다. 수도에 이르자 머물 곳을 하사 받았고 또 하사품도 대단히 많았다. 두 달을 머무른 뒤 풀려나면서 누런 보따리 하나를 하사 받았는데, 封印이 꽤 단단히 찍혀 있었다. 주의를 주기를, “돌아가는 길에 꼭 자세히 살펴보라”라 했다. 풀어보니, 보자기 가득 전속을 가두라는 군신들의 상소문이 있었다. 전속은 심히 두려웠다. 돌아온 뒤 탑을 지

39) 羅隱(833-909): 唐末五代의 道家學者로, 《諷書》와 《太平兩同書》같은 책을 지었다.

어 부처의 은혜에 보답했다. 保俶이라는 이름을 保叔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잘 모르는 자가 또 따라서 ‘保叔緣何不保夫’라는 詩句도 썼다.⁴⁰⁾ 전숙은 사람됨이 공손하고 신중하여 풀려나 돌아온 뒤에도 일을 볼 때마다 동쪽 끝에 앉아 주위에 말하길,⁴¹⁾ “西北은 황제의 神京이 있는 곳으로, 천자의 위엄이 내 얼굴과 지척 거리에 있는데 내 어찌 감히 편안히 거하겠는가!”라 했다. 매일 자신을 수양하고 반성하며 조정에 공물을 들임에 향을 태운 이후에 사절을 보냈다.⁴²⁾ 얼마 후 영토를 송나라에 돌려주어 淮海國王에 봉해졌다. 보숙탑은 元 至正 말년에 훼손되었다가 승려 慧炬에 의해 재건되었다. 明 成化 연간에 다시 훼손되었다가 正德 9년에 文鏞이 재건했다. 嘉靖 元年에 다시 훼손되었다가 22년 승려 永固가 재건했다. 隆慶 3년에 거센 바람에 지붕이 부러지자 탑도 점점 허물어졌는데 萬曆 23년에 수리했다. 보숙탑이 있던 자리에는 壽星石과 屯霞石이 있다. 절에서 백보 떨어진 곳에 看松臺도 있다.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대한 골짜기가 보이고 소나무 끝을 뛰어넘을 듯 하여 보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탑 아래 석벽은 가파르고 그 석벽을 따라 가면 암자 네댓 칸이 있는데 자연이 그린 그림 같다.

7. 瑪瑙寺 마노사

瑪瑙坡在保俶塔西, 碎石文瑩, 質若瑪瑙, 土人采之, 以鑄圖篆. 晉時遂建 瑪瑙寶勝院, 元末毀, 明永樂間重建. 有僧芳洲什夫藝竹得泉, 遂名什夫泉. 山巔有閣, 凌空特起, 憑眺最勝, 俗稱瑪瑙山居. 寺中有大鍾, 侈舛齊適, 舒而遠聞, 上鑄《蓮經》七卷, 《金剛經》三十二分. 晝夜十二時, 保六僧撞之. 每撞一聲, 則《法華》七卷, 《金剛》三十二分, 字字皆聲. 吾想法夜聞鍾, 起人道念, 一至旦晝, 無不牒

40) 保叔緣何不保夫: 보숙탑의 전설 가운데 宋氏 성을 가진 형수가 시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형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간 시동생의 안전을 빌기 위해 탑을 지었는데, 이를 혹자가 풍자하길, “어찌 시동생을 보호하고 지아비를 보호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시를 적은 것이다.

41) 고대 황제는 북쪽에 앉아 남쪽을 보았다. 때문에 南面은 곧 왕을 지칭한다. 吳越은 동남쪽에 위치했기에, 전숙이 동쪽 끝에 앉아 스스로 왕의 신하임을 보인 것이다.

42) 옛날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조건할 때는 향을 태워 잡귀를 없애 공경의 뜻을 보였다.

亡. 今於平明白晝時聽鍾聲, 猛爲提醒, 大地山河, 都爲震動, 則鏗鐃一響, 是竟《法華》一轉, 《般若》一轉矣. 內典雲: 人間鍾鳴未歇際, 地獄衆生刑具暫脫此間也. 鼎革以後, 恐寺僧惰慢, 不克如前.

마노 언덕은 保俶塔 서쪽에 있는데 깨진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마노와 같은 질감이라 현지인들이 그 돌을 채집해 도장을 뒀다. 쏘나라 때 비로소 瑪瑙寶勝院이 지어졌으나 元나라 말기에 훼손되었다. 明 永樂연간에 재건되었다. 승려 芳洲의 하인이 대나무를 심었는데 싹이 생겼고, 이를 仆夫泉(仆夫는 하인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산꼭대기에는 누각이 있는데 하늘 높이 뻗어 먼 곳을 바라보기는 최고로 좋다. 흔히 瑪瑙山居라 부른다. 절에 큰 종이 있는데 鍾口의 크기가 알맞아 소리가 편안하고 멀리 퍼진다. 종에 《蓮經》⁴³⁾ 7권과 《金剛經》⁴⁴⁾ 32分을 새겨져 있다. 밤낮으로 12시가 되면 여섯 명의 승려가 종을 울린다. 종이 한 번 울리면 《法華》 7권과 《金剛》 32分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울리는 것이다. 내 생각에 한밤중에 종소리를 들으면 道를 깨우쳐 하루 종일 속박됨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새벽이 밝아 오는데 종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대지와 강산이 모두 진동한다. 멍하고 한 번 울리면 필경 《법화》와 《반야》를 한 번씩 읽는 것과 같다. 불경에 이르길, “인간이 울리는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 때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의 형벌이 잠시 멈추고 해탈하는 때이다. 왕조가 바뀐 뒤 승려들이 게을러져 전과 같이 열심히 종을 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했다.

8. 智果寺 지과사

智果寺, 舊在孤山, 錢武肅王建. 宋紹興間, 造四聖觀, 徙於大佛寺西. 先是東坡守黃州, 於潛僧道潛, 號參寥子, 自吳來訪, 東坡夢與賦詩, 有“寒食清明都過了, 石泉槐火一時新”之句. 後七年, 東坡守杭, 參寥居智果, 有泉出石罅間. 寒食之明

43) 《蓮經》: 불교 경전인 《妙法蓮華經》으로, 《法華經》이라고도 한다.

44) 《金剛經》: 불교 경전인 《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般若經》이라고도 한다.

日, 東坡來訪, 參寥汲泉煮茗, 適符所夢. 東坡四顧壇墠, 謂參寥曰: “某生平未嘗至此, 而眼界所視, 皆若素所經歷者. 自此上懺堂, 當有九十三級.” 數之, 果如其言, 卽謂參寥子曰: “某前身寺中僧也, 今日寺僧皆吾法屬耳, 吾死後, 當舍身為寺中伽藍.” 參寥遂塑東坡像, 供之伽藍之列, 留偈壁間, 有: “金剛開口笑鍾樓, 樓笑金剛兩打頭, 直待有鄰通一線, 兩重公案一時修.” 後寺破敗. 崇禎壬申, 有揚州茂才鮑同德字有鄰者, 來寓寺中. 東坡兩次入夢, 屬以修寺, 鮑辭以“貧士安辦此?” 公曰: “子弟爲之, 自有助子者.” 次日, 見壁間偈有“有鄰”二字, 遂心動立願, 作《西泠記夢》, 見人輒出示之. 一日至邸, 遇維揚姚永言, 備言其夢. 座中有粵東謁選進士宋公兆論者, 甚爲駭異. 次日, 宋公筮仕, 遂得仁和. 永言慫恿之, 宋公力任其艱, 寺得再葺. 時有泉適出寺後, 好事者仍名之參寥泉焉.

智果寺는 과거 孤山에 있었고 錢武肅王이 지었다. 宋 紹興 연간에 四聖觀을 지으면서 지과사는 佛寺 서쪽으로 옮겨졌다. 먼저 蘇東坡 黃州에 있을 때 일이다. 於潛⁴⁵⁾의 승려 道潛⁴⁶⁾은 號가 參寥子인데 그가 뭇 땅에서 왔다. 소동파가 꿈속에서 그와 함께 시를 지었다며 이런 구절을 말했다. “한식과 청명도 모두 지나가니 샘물과 화나무 꽃이 일시에 새롭구나.” 그 후 7년, 소동파가 杭州에 있을 때의 일이다. 참요자가 지과사의 터를 정하고 보니 갈라진 돌 틈에서 나오는 샘물이 있었다. 寒食 다음날, 소동파가 방문하자 참요자가 그 샘물을 끓여 차를 만들었는데 꼭 일전에 꾸 꿈과 같았다. 소동파는 사방의 사찰과 제단을 둘러보고 참요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평생 이곳에 와본 적이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마치 이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懺堂까지 가려면 93개의 제단을 거쳐야겠습니다.” 세어보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곧 이어 참요자에게 말하길, “제가 전생에 이 곳의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절의 스님들은 모두 저와 동기일 따름이지요. 제가 죽으면 꼭 육신을 절에 바쳐 伽藍⁴⁷⁾이 되겠습니다”라 했다. 참요자는 소동파의 동상을 만들어 가람신과

45) 於潛: 浙江省 臨安縣으로 당시는 항주부에 속했다.

46) 道潛 (1043—1106): 北宋의 詩僧으로 蘇軾과 秦觀과 교류했다.

47) 伽藍: 승려들이 머무는 사찰로 僧伽藍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사찰을 보호하는 伽藍神의

같은 항렬로 공양했고 偈를 벽에 남겼다.⁴⁸⁾ “金剛 입 열어 鍾樓를 향해 웃고 종루는 머리에 비 맞는 금강을 향해 웃네. 선 하나로 이어줄 이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니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풀리는 구나.” 훗날 절은 망가졌다. 崇禎 壬申年에 揚州의 茂才 鮑同德, 字가 有鄰인 자가 와서 절에 머물렀다. 소동파는 두 번 꿈을 꾸 뒤 그에게 절을 수리하라 명했는데 포동덕이 거절하기를, “가난한 선비가 어찌 이런 일을 맡겠습니까?”라 했다. 소동파가 답하길, “그대가 한다면 자연히 돕는 자가 있을 것이오”라 했다. 다음날 포동덕은 담장에 적힌 偈의 글귀에서 ‘有鄰’이란 두 글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뜻을 세웠다. 《西泠記夢》이란 글을 지어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 보였다. 하루는 관저에 이르러 維揚 사람 姚永言⁴⁹⁾을 만나 꿈을 모조리 말했다. 좌중에 粵東에서 進士로 뽑힌 宋兆禪⁵⁰⁾이란 자가 듣고 매우 놀랐다. 다음날 송조약은 관리가 되어 仁和⁵¹⁾로 부임했다. 요영언이 계속 조르자 송조약은 몇 번 거절한 끝에 절을 다시 수리했다. 당시 절 뒤에 샘물이 솟았는데 호사가들은 그것을 參寥泉이라고 불렀다.

9. 六賢祠 육현사

宋時西湖有三賢祠兩：其一在孤山竹閣. 三賢者, 白樂天, 林和靖, 蘇東坡也. 其一在龍井資聖院. 三賢者, 趙閱道, 僧辨才, 蘇東坡也. 寶慶間, 袁樵移竹閣三賢祠於蘇公堤, 建亭館以沽官酒. 或題詩雲: “和靖, 東坡, 白樂天, 三人秋菊薦寒泉, 而今滿面生塵土, 欲與袁樵趁酒錢.” 又據陳眉公筆記, 錢塘有水仙王廟, 林和靖祠堂近之. 東坡先生以和靖清節映世, 遂移神像配食水仙王. 黃山穀有《水仙花》詩用此事: “錢塘昔聞水仙廟, 荊州今見水仙花, 暗香靚色撩詩句, 宜在孤山處士家.” 則宋時所祀, 止和靖一人. 明正德三年, 郡守楊孟瑛重浚西湖, 立四賢祠, 以祀李鄴侯, 白, 蘇, 林四人, 杭人益以楊公, 稱五賢. 而後乃祧楊公, 增祀周公維新, 王公弇

로 쓰였다.

48) 偈: 伽陀라고도 하며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가사다.

49) 維揚: 江蘇省 揚州이다. 姚永言은 姚思孝로, 字가 永言이다. 崇禎 元年에 進士를 지냈는데 나중에 승려가 되었다.

50) 宋兆禪(1600-1642): 廣東省 揭陽사람이다.

51) 仁和: 浙江省 杭州에 속한 옛 縣이다.

州, 稱六賢祠. 張公亮曰: “湖上之祠, 宜以久居其地, 與風流標令爲山水深契者, 乃列之. 周公冷面, 且爲神明, 有別祠矣. 弇州文人, 與湖非久要, 今並四公而坐, 恐難熟熟也.” 人服其確論.

송나라 때 西湖에는 三賢祠가 두 곳이였다. 하나는 孤山 竹閣에 있었다. 三賢은 白樂天, 林和靖, 蘇東坡다. 다른 하나는 龍井 資聖院에 있었다. 여기서 삼현은 趙閱道,⁵²⁾ 승려 辨才,⁵³⁾ 소동파다. 寶慶 연간에 袁樵가 죽각에 있던 삼현사를 蘇公堤로 옮겨 亭館을 짓고 관청의 술을 팔았다.⁵⁴⁾ 후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임화정, 소동파, 백거이, 이 셋이 가을 국화를 찬 물에 띄웠으니 지금은 진흙이 가득 떠올랐으니 원초와 술값이나 다투려 한다.” 또 陳眉公⁵⁵⁾의 筆記에 따르면 錢塘에 水仙王廟⁵⁶⁾가 있는데 임화정의 사당과 가깝다고 한다. 소동파 선생이 임화정의 고결한 절개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神像을 옮겨서 수선왕과 함께 모셨다. 黃山穀의 《水仙花》라는 시에도 이 일이 적혀있다.⁵⁷⁾ “과거 錢塘에 水仙廟가 있다들었는데 荊州에 지금 수선화가 보이네. 은은한 향기 아름다운 빛깔이 詩句를 불러일으키니 孤山 士家에 있는 듯하다.” 즉 송나라 때 수선왕묘에서 지낸 제사는 오직 임화정 한 사람뿐이다. 明 正德 3년, 郡守 楊孟瑛⁵⁸⁾이 서호를 다시 파고 四賢祠를 세워 李鄴侯, 백거이, 소동파, 임화정, 이 넷을 모셨다. 항주 사람들은 여기에 양맹영도 더하여 五賢이라 불렀다. 그 후 양맹영을 옮기고 周公維新⁵⁹⁾과 王公弇州⁶⁰⁾를 더해 六賢祠라 불

52) 趙閱道(1008-1084): 北宋의 趙抃이다.

53) 승려 辨才: 徐元淨의 字는 無象으로 항주 출신이다. 열 살에 출가하여 이십년간 설법을 하고 은퇴하여 용정에서 살았다.

54) 袁樵: 《西湖遊覽志》에 따르면 袁詔(1161-1237)를 잘못 적은 것으로, 淳熙 14년 進士가 되어 臨安府尹을 십년간 맡았다.

55) 陳眉公(1558-1639): 明代문인 陳繼儒로, 眉公은 그의 號이다.

56) 水仙王廟: 《西湖遊覽志》의 기록에 따르면 수선왕묘는 蘇堤에 있었고 龍王祠라고도 한다. 그곳에는 存菊이라는 이름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57) 黃山穀(1045-1105): 北宋의 시인 黃庭堅으로, 山穀은 그의 號이다.

58) 楊孟瑛: 明 弘治 16년에 杭州知州로 부임했다. 당시 서호는 침전된 흙으로 막혀있었는데 그가 다시 파내고 다리를 만들었다. 훗날 이 다리를 楊公堤라 불렀다.

59) 周公維新: 明代의 관리 周新(?-1413)으로 明 成祖에 의해 杭州城隍으로 봉해졌다. 청렴하여 항주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렀다. 張公亮이 말하길,⁶¹⁾ “서호에서 제사를 지내주려면 마땅히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풍류를 알고 산수를 깊이 이해해야만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주공유신은 사람이 청렴하고 총명하니 따로 모시는 것이다. 왕공엄주는 文人으로 서호에 머문 게 오래지 않으니 지금 사현과 함께 모시나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 했다. 사람들이 그의 정확한 논리에 신복했다.

10. 西泠橋 서령교

西泠橋一名西陵, 或曰: 卽蘇小小結同心處也. 及見方子公詩有雲: “數聲漁笛知何處, 疑在西泠第一橋. 陵作泠, 蘇小恐誤.” 余曰: “管不得, 只西陵便好. 且白公斷橋詩‘柳色靑藏蘇小家’, 斷橋去此不遠, 豈不可借作西泠故實耶!” 昔趙王孫孟堅子固常客武林, 值菖蒲節, 周公謹同好事者邀子固遊西湖. 酒酣, 子固脫帽, 以酒晞發, 箕踞歌《離騷》, 旁若無人. 薄暮入西泠橋, 掠孤山, 艤舟茂樹間, 指林麓最幽處, 瞪目叫曰: “此眞洪穀子, 董北苑得意筆也.” 鄰舟數十, 皆驚駭絕歎, 以爲眞謫仙人. 得山水之趣味者, 東坡之後, 復見此人.

西泠橋는 西陵이라고도 한다. 혹자는 말하길, “蘇小小⁶²⁾가 마음을 맺은 장소”라 했다. 方子公⁶³⁾의 詩에 보면 이르길, “계속 들리는 고기 잡는 소리 어디서 들리는지 알겠구나. 아마도 西泠의 첫 번째 다리리라’라는 구절에서 ‘陵’을 ‘泠’이라 적은 건 소소소의 서릉을 오해했기 때문인 듯하다”라 했다. 내가 말하길, “상관없다. 西陵이라면 된다. 백거이의 斷橋詩에 보면, ‘버들 빛깔 푸르름이 蘇小의 집에 숨겨졌구나’⁶⁴⁾라는 구절이 있는데 단교는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60) 王公弇州(1526-1590): 明代 後七子의 한 명인 王世貞으로, 弇州山人이 號이다.

61) 張公亮(15883-1642): 明代의 문인 張明弼로 公亮은 字이다.

62) 蘇小小: 南朝 齊나라의 기녀로 錢塘의 名倡으로 전해진다. 《玉台新詠》에 수록된 《蘇小小歌》에 보면, “妾乘油壁車, 郎跨青驄馬. 何處結同心, 西陵松柏下一名伎, 常坐油壁車.”라는 구절이 있다.

63) 方子公: 方文僊으로 字가 子公이다. 徽州사람으로 袁宏道와 함께 항주를 유람한 친구라 알려져 있다.

64) 이는 白居易의 七言 律詩 《杭州春望》의 한 구절이다. “望海樓明照曙霞, 護江堤白蹋晴沙. 濤聲夜入伍員廟, 柳色春藏蘇小家. 紅袖織綾誇柿蒂, 靑旗沽酒趁梨花. 誰開湖寺西南路, 草綠

있으니, 어찌 西泠을 西陵의 옛 터로 보고 차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했다. 옛날 趙王孫孟堅子固⁶⁵⁾가 오랫동안 武林⁶⁶⁾에 머물렀는데 단오날에 周公謹⁶⁷⁾이 호사자와 함께 조자고를 불러 서호를 유람했다. 술이 취하자 조자고가 모자를 벗었는데, 보니 술로 머리를 감은 듯 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아 《離騷》를 부르는데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듯했다. 열은 밤기운이 서령교로 스며 들고 孤山을 스치는데 배가 무성한 숲을 지나 울창하고 깊은 곳으로 향하자, 조자고가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다. “이곳은 그야말로 洪穀子⁶⁸⁾와 董北苑⁶⁹⁾이 뜻을 얻은 필법과도 같구나.” 곁에 있던 수십 척의 배가 모두 놀라고 감탄하며 그를 하늘에서 유배 온 신선으로 여겼다. 산수의 취미를 얻은 자 중에 소동파 이후 조자고와 같은 이를 다시 볼 수 없겠다.

11. 嶽鄂墳 악양분

嶽鄂王死, 獄卒隗順負其屍, 逾城至北山以葬. 後朝廷購求葬處, 順之子以告. 及啓棺如生, 乃以禮服殮焉. 隗順, 史失載. 今之得以崇封祀享, 盼蚤千秋, 皆順力也. 倪太史元璐曰: “嶽王祠, 泥範忠武, 鐵鑄檜, 高, 人之欲不朽檜, 高也, 甚於忠武.” 按公之改謚忠武, 自隆慶四年. 墓前之有秦檜, 王氏, 萬俟卨三像, 始於正德八年, 指揮李隆以銅鑄之, 旋爲遊人撻碎. 後增張俊一像. 四人反接, 跪於丹墀. 自萬曆二十六年, 按察司副使範涑易之以鐵, 遊人椎擊益狠, 四首齊落, 而下體爲亂石所擲, 止露肩背. 旁墓爲銀瓶小姐. 王被害, 其女抱銀瓶墜井中死. 楊鐵崖樂府曰: “嶽家父, 國之城, 秦家奴, 城之傾. 皇天不靈, 殺我父與兄. 嗟我銀瓶爲我父, 緹縈生不贖父死, 不如無生. 千尺井, 一尺瓶, 瓶中之水精衛鳴.” 墓前有分屍檜. 天順八年,

裙腰一道斜.”

65) 趙王孫孟堅子固: 趙王孫은 趙孟堅으로 字가 子固다. 송 태조 조광윤의 11대손이다.

66) 武林: 옛날 杭州의 별칭이다.

67) 周公謹(1232-1298): 南宋 문인 周密로 公謹은 그의 字이다.

68) 洪穀子: 唐末五代 河南 沁水 사람. 後梁 때 난세를 피하여 太行山 洪穀에 은거하여 洪穀子라 했다. 일생 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림에만 전념했다. 산수화를 잘 그려 당대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

69) 董北苑: 唐末五代 화가로 江西省 鍾陵 출신이다. 남당에서 벼슬하여 北苑使가 되었기에 董北苑이라고도 한다.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높은 품격을 인정받아 남송화의 시조라 일컫는다.

杭州同知馬偉鋸而植之, 首尾分處, 以示礪檜狀. 隆慶五年, 大雷擊折之. 朱太史之俊曰: “一秦檜耳, 鐵首木心, 俱不能保至此.” 天啓丁卯, 浙撫造祠媚璫, 窮工極巧, 徙蘇堤第一橋於百步之外, 數日立成, 駭其神速. 崇禎改元, 魏璫敗, 毀其祠, 議以木石修王廟. 荀之王, 王弗許. 嶽雲, 王之養子, 年十二從張憲戰, 得其力, 大捷, 號曰“贏官人”, 軍中皆呼焉. 手握兩鐵錘, 重八十斤. 王征伐, 未嘗不與, 每立奇功, 王輒隱之. 官至左武大夫, 忠州防禦使. 死年二十二, 贈安遠軍承宣使. 所用鐵錘猶存. 張憲爲王部將, 屢立戰功. 紹興十年, 兀術屯兵臨穎, 憲破其兵, 追奔十五里, 中原大振. 秦檜主和, 班師. 檜與張俊謀殺嶽飛, 誘飛部曲能告飛事者, 卒無人應. 張俊鍛煉憲, 被掠無完膚, 強辯不伏, 卒以冤死. 景定二年, 追封烈文侯. 正德十二年, 布衣王大祐發地得碣石, 乃崇封焉. 郡守梁材建廟, 修撰唐臯記之. 牛皐墓在棲霞嶺上. 皐字伯遠, 汝州人, 嶽鄂王部將, 素立戰功. 秦檜懼其怨已, 一日大會衆軍士, 置毒害之. 皐將死, 歎曰: “吾年近六十, 官至侍從郎, 一死何恨, 但恨和議一成, 國家日削. 大丈夫不能以馬革裹屍報君父, 是爲歎耳!”

嶽鄂王⁷⁰⁾이 죽자 隗順이라는 옥졸이 그 주검을 짊어지고 성곽을 넘고 복산으로 가서 안장했다. 그 후 조정에서 악약왕의 장지를 찾는 데에 상금을 걸자 외순의 아들이 말했다. 가서 관을 열었더니 살아있는 것 같아 상복을 입히고 염을 했다. 외순은 역사에 기록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숭상 받고 제사를 받으며 오랜 세월동안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 덕이다. 倪太史元璐⁷¹⁾가 말하길, “嶽王祠에는 진흙으로 만든 충무의 모형과 쇠를 녹여 만든 秦檜⁷²⁾와 萬俟卨⁷³⁾이 있다. 사람들이 진회와 만사설이 썩지 않기를 바랐던

70) 嶽鄂王(1103-1141): 金나라에 저항한 南宋의 장수 嶽飛다. 복송 말기 군에 들어가 嶽家軍을 이끌고 金나라를 공격하여 세력을 약화시켰으나, 당시 和平論을 주장하던 재상 秦檜의 모략에 빠져 누명을 쓰고 살해되었다. 진회가 죽은 뒤 악비는 누명이 벗겨지고, 救國의 영웅이 되어 嶽王廟에 배향되었다.

71) 倪太史元璐: 明나라 말기의 관리이자 서예가 倪元璐다. 明天啓 2년에 進士를 지냈다. 崇禎 17년에 李自成이 수도를 차지하자 자살하여 절개를 지켰다.

72) 秦檜(1090-1155): 南宋의 재상으로 主和派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송나라 高宗에게 金나라 투항을 할 것을 권하고 명장 嶽飛에게 누명을 씌워 죽여 간신이다.

73) 萬俟卨(1083-1157): 진회와 의기투합하여 金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을 모함해 빠트린 인

마음이 忠武⁷⁴⁾보다 심했던 것이다. 公의 시호가 충무로 바뀐 것을 헤아려 보면 대략 隆慶 4년이다. 악비의 묘 앞에는 진희와 王氏,⁷⁵⁾ 그리고 만사설의 동상이 있다. 正德 8년에 처음으로 李隆의 지휘아래 구리로 만들었는데 여행객들이 돌면서 때려 부수었다. 나중에 張俊⁷⁶⁾의 동상이 추가되어 네 명이 뒤로 손이 묶인 채 붉은 섬돌에 꿰어 앉아 있다. 萬曆 26년 按察司副使 範涑가 동상을 철로 바꾸면서 여행객들의 폭행이 더욱 심해졌으니, 네 사람의 머리가 모두 떨어지고 하체도 마구 던져진 돌에 맞아 버려 어깨와 등만 남게 되었다. 악악왕 묘 앞에는 은병소녀⁷⁷⁾가 있다. 악악왕이 살해된 뒤 그의 딸이 은병을 품고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楊鐵崖⁷⁸⁾의 樂府에 이르길, “嶽氏 집안의 아버지는 나라의 성벽인데 秦氏 집안의 노비가 그 성벽을 허물었구나. 하늘이 영험치 못해 내 아버지와 형제를 죽였도다. 아! 내 은병을 내 아버지로 여기며 緹縈⁷⁹⁾처럼 살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구하지 못하니 죽는 게 낫겠다. 천리 길 우물이나 한 길 병 속이나 물에 빠지면 精衛⁸⁰⁾ 새처럼 울부짖으리라.” 묘 앞에는 分屍櫓⁸¹⁾가 있다. 天順 8년에 항주의 同知⁸²⁾ 馬偉鋸가 심었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져 마치 진희의 사지가 찢

물이다. 만사설도 명장 악비를 포함하여 해치는데 적극 가담했는데 훗날 진희와 권력 다툼을 하다 축출되었다.

74) 忠武: 악비의 諡號. 악비는 1178년에 武穆이란 시호를 받았는데, 후에 무관에게 내리는 최고의 시호인 충무로 개정되었다.

75) 王氏: 진희의 아내로, 북송의 재상 王珪의 손녀다. 진희가 악비를 포함할 때 세간의 의론이 들끓을까 걱정하며 주저하자 아내인 왕씨가 부추겼다고 하여 함께 동상을 세워 둔 것이다.

76) 張俊(1086-1154): 南宋의 장수로, 嶽飛와 韓世忠, 韓琦와 함께 남송의 4대 名將으로 꼽힌다. 高宗의 총애를 받아 만년에 악비와 함께 清河郡王에 봉해졌으나 나중에 진희와 결탁해 악비를 포함하는 데에 일조했다.

77) 은병소녀: 악비의 딸 嶽孝娥로 부친의 억울한 사망소식을 듣고 은병을 끌어안고 죽었다고 하여 은병소녀라 전해진다.

78) 楊鐵崖(296-1370): 元나라의 문인 楊維禎으로 號가 鐵厓다. 원나라 말기에 병란이 일어나자 강남으로 피난을 가 항주에서 살았다.

79) 緹縈: 淳於緹縈로 西漢의 관리 淳於意의 딸이다. 文帝 때 순우의가 모함을 당해 사형선고를 받아 딸인 제영이 문제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을 관노로 바치겠다고 아버지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80) 精衛: 신화 속 인물 炎帝의 딸로 바다에 빠져 죽고 정위라는 새가 되었다.

81) 分屍櫓: 노승나무인데 秦檜의 사지를 찢어버린다는 의미로 분시화라 이름지었다.

겨진 모양이다. 隆慶 5년에 엄청난 우레가 쳐서 나무를 갈라놓은 것이다. 朱太史之俊이 말하길,⁸³⁾ “일개 진회 따위일 뿐. 철로 머리를 만들고 나무로 심장을 만들었다 해도 모두 보전하지 못함이 이와 같다”라 했다. 天啓 丁卯년에 浙江巡撫가 사당을 지어 환관⁸⁴⁾에게 아첨하고자 세심하게 일을 하여 蘇堤의 첫 번째 다리를 백步 밖으로 옮김에 며칠 만에 완성해내니 그 신속함이 놀라웠다. 崇禎 改元年 魏璫이 패하고 그 사당이 망가져 돌과 나무로 수리할 것을 의논했다. 점을 치자 악악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嶽雲은 악악왕의 양자인데 열두 살에 張憲을 따라 전쟁에 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크게 이겼다. 號를 羸官人이라 했는데 군중에서도 다 그렇게 불렀다. 두 손에 쥔 망치의 무게가 80斤이나 나갔다. 악악왕이 정벌에 나서면 함께했고 매번 뛰어난 공을 세웠으나 악악왕이 늘 그의 공을 숨겼다. 관직은 左武大夫와 忠州防禦使까지 올랐다. 사망한 나이가 22세로 安遠軍承宣使로 추봉되었다. 그가 사용했던 망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張憲은 악악왕의 부하 장수로 여러 번 戰功을 세웠다. 紹興 10년에 兀朮이 臨穎에 병사들을 주둔시키자 장헌이 그 병사들을 격파하여 15리까지 추격해 중원을 크게 진동시켰다. 진회가 화친을 주장하여 병사들을 철수시켰다. 진회와 장준은 모략을 꾸며 악비를 죽이려고 악비의 부하들을 찢어 잘못된 일을 고하라고 했지만 끝내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장준은 장헌을 고문하여 온전한 피부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지만 장헌은 강변하며 불복하다 결국 원한을 품고 죽었다. 景定 2년에 烈文侯에 추봉되었다. 正德 12년 王大祐라는 평민이 비석을 발견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추봉되었다. 郡守 梁材가 사당을 짓고 修撰 唐臯가 기록했다. 牛皐의 묘는 棲霞嶺 위에 있다. 우고의 字는 伯遠으로 汝州사람이며 악악왕의 부하 장수로 일찍이 戰功을 세웠다. 진회는 우고가 자신을 원망할까 두려워 어느 날 크게 연회를 열고 여러 군사들이 있는 틈에 독을 두어 그를 죽였다. 우고가 죽으면서 탄식하길, “내 나이 예순, 관직은 侍從郎에 올랐

82) 同知: 知府를 보좌하는 正五品의 관직이다.

83) 朱太史之俊: 天啓 2년에 進士가 된 朱之俊이다. 학식이 깊어 翰林院과 國子監에서도 일했는데 명나라가 망한 뒤에는 관직을 마다하고 산수에 빠져 살았다.

84) 기서 말하는 환관은 魏忠賢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魏璫 역시 위충현을 가리킨다.

으니 지금 죽음에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단지 화친이 맺어지면 나라의 영토가 나날이 좁아질까 두렵다. 대장부가 되어 전장에서 죽어 그 시체가 말가죽에 싸여 왕께 보답하지 못한다니, 이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 했다.

12. 紫雲洞 자운동

紫雲洞在煙霞嶺右. 其地怪石蒼翠, 劈空開裂, 山頂層層, 如廈屋天構. 賈似道命工疏剔建庵, 刻大士像於其上. 雙石相倚爲門, 清風時來, 豁豁透出, 久坐使人寒栗. 又有一坎突出洞中, 蓄水澄潔, 莫測其底. 洞下有懶雲窩, 四山圍合, 竹木掩映, 結庵其中. 名賢遊覽至此, 每有遺世之思. 洞旁一壑幽深, 昔人鑿石, 聞金鼓聲而止, 遂名“金鼓洞”. 洞下有泉, 曰“白沙”. 好事者取以瀹茗, 與虎跑齊名.

紫雲洞은 煙霞嶺 오른쪽에 있다. 그 바닥에는 괴이하게 생긴 돌과 푸른 풀이 있고 허공을 뚫고 나온 듯 산꼭대기가 겹겹이 쌓여, 마치 하늘이 만든 큰 집 같다. 賈似道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바위를 깎아 암자를 짓고 大士⁸⁵⁾의 초상을 그 위에 새기라 했다. 양쪽의 돌이 서로 비스듬히 맞닿아 대문이 되었는데,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확 트여 드러나고 오래 앉아 있으면 한기가 느껴졌다. 또 웅덩이 하나가 동굴 안에서 보이는데 축적된 물이 맑고 깨끗해 그 바닥을 예측할 수 없었다. 동굴에는 아래에는 懶雲窩라는 동굴이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대나무와 잘 어울렸는데 암자를 만든 곳이 그 한 가운데다. 유명인사와 현자가 이곳에 와 유람할 적마다 매번 세상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 동굴 옆에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 옛 사람들이 돌을 깎다가 金鼓 소리를 들으면 멈추었다 하여 金鼓洞이라고 부른다. 동굴 아래에는 샘이 있는데, 이를 白沙라 불렀다. 호사가들은 이 물을 가져다 차를 끓였는데 虎跑⁸⁶⁾와 더 붙여 유명하다.

85) 大士: 관세음보살을 말한다.

86) 虎跑: 西湖 大慈山 아래에 있는 虎跑泉으로, 천하의 3대 名泉으로 알려졌다.

4. 결 론

《서호몽심》은 장대의 작품세계와 만명 소품문의 확장성을 이해하고 강남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통합적 형태의 소품 집이다. 본고는 이전까지 국내에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만명 소품문집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가 번역한 부분은 총 5권 중 1권이다. 서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한 西湖總記 明聖二湖와 西湖北路 부분에 해당한다. 본 편에서는 정자, 사찰, 탑, 묘비와 같은 건축과 동굴과 돌과 같은 자연을 제재로 하여 위치에 대한 설명, 관련된 역사기록이나 인물, 멋진 관광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 參考文獻 >

- 張 岱, 林邦鈞 注評, 《西湖夢尋》, 上海古籍出版社, 2013.
 ——, 俞瓊穎 評注, 《西湖夢尋》, 上海三聯書店, 2014.
 脫 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田汝成, 《西湖遊覽志餘》, 台北: 世界書局, 民國52(1963).
 ——, 《西湖遊覽志》, 台北: 商務印書館, 民國60(1971).
 永 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 Abstract >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of 《Xi-hu meng xun》(1)

Kim, Sook-hyang

This study is translates and annotates of 《Xi-hu meng xun》. 《Xi-hu Meng xun》 was written by Ming Dynasty writer Zhang-dai(1597-1679). Xi-hu is a lake located in Hang-zhou, Zhejiang province. Zhang-dai lived Hangzhou for over forty years and he loved everything there. After the collapse of Ming Dynasty, Zhang-dai mourned over the ruined city. He wrote the 《Xi-hu Meng xun》 because he wanted to let his descendants know about the city that was once beautiful. Therefore, Zhang-dai divided the Xi-hu into sections and described the natural scenery and historical sources. This work exploring the practical value of Late Ming Xiao-pin, and provides materials outside of literature.

Key words: Xi-hu meng xun, Zhang-dai, Xi-hu, xiaopin, Late Ming dynas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5.	2017. 11. 28.	2017. 12. 10.	2017. 12. 15.	2017. 12. 31